

養鷄人의 主人意識

미사료곡물협회 박영인 지부장과



양계업중에도 채란분야가 극심한 불황으로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야단이다.

파도가 바위를 모두 삼키어 버릴것같이 불
황의 파도가 마치 양계산업 전체를 삼키어
버릴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파도가 잔잔해지
면 바위는 우뚝서듯이 양계산업도 불황을 이
기고 우뚝설것이다.

양계인들과 관련기관의 협조로 4월 28일
때란 1개가 33원 하던것이 2주만에 9원이
올라 41원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아직도 생산
비에는 미달이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
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이제 됐다 하고 방심 할때가
가장 위험할때이며 일어선줄로 생각하면 넘어
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생각할 시기이다.

그간 불황이 올때마다 원인과 대책이 논의
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잊어버리는 일이 되
풀이 되어왔다.

히마라야의 고산지대에 사는 어느 새는 밤
에 잠잘때는 추워 떨며 날이새면 집을 짓자
고 밤새다짐하다가 날이새어태양이 나오고 따
뜻해지면 집을 지울것을 잊어버리고 또 밤을
맞아 추위에 떠는일을 계속한다고 한다.

이제 양계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박
영인 부장을 찾아 총정리 하였다.

기자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79년말에 오봉국박사님과 박부장님이 채란
분야의 발전 저해 요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양계산업
의 안정화 방안을 본지 80년 1월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박부장님은 양계분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과 같은 불황을 맞아 왜
이런 불황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지와 양계인
들이 할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보고저 합
니다.

제목을 양계인의 주인의식이라고 정해 주
셨는데 우선 문제의 소재부터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제의 소재 -

양계장 주인은 건재하나 양계산업 주인이 없어

박-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양
계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수급조절은 어느
개인이 혼자서 할수도 없는 것이며 양계산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현재 우리는 산업적관점에서 볼때 양계산업의 주인이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양계장 주인은 있는데 양계산업의 주인이 없어서 산업전체가 해야할 수급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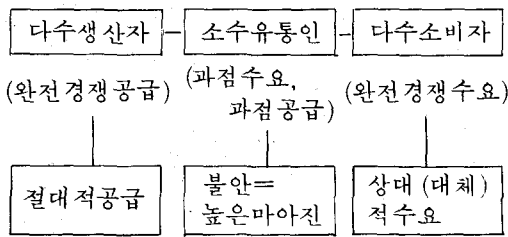
문제해결의 주체는 양계인이다.

기자—이러한 문제점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우선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계산업은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급면에서 완전 경쟁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양계산물은 시장상인에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절대적 공급상태입니다.

유통면을 보면 소수의 유통인이 과점수요와 과점공급으로 시장이 불안해져 높은 마아진을 얻고 있으며, 소비면은 다수 소비자가 완전 경쟁수요 상태이며 수요는 상대(대체)적 수요로 양계산물의 값이 비싸면 다른것으로 수요가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급의 불균형으로 산업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수급조정에 있으며 문제해결의 목표도 수급조정(需給調整)에 두어야 되는데 수급조정은 생산 유통 소비 모든분야의 수급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고 문제 해결의 목표도 명확해 졌는데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나눌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 생산의 자율적인 조정방법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방 법 | 입법조치 | 대표적인예 | 자 금 |
|-------|--------|--------------------|------|
| 적극적방법 | 법적조치 | 호주 Aust, Egg Board | 안정기금 |
| 소극적방법 | 행정조치 | 미국 Am, Egg Board | 개발기금 |
| 임의적방법 | 생산자스스로 | 한국 K·P·Asso | 회 비 |

여기에서 개발기금이란 단어를 처음사용하였는데 이는 안정기금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말로 표현하여 보았습니다. 생산자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소비홍보나 신제품개발등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되는 산업개발기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하여줍니다.

일단 부과는하되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점이 민주주의의 장점인것 같습니다. 약 10%정도만이 환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협회가 (KPA)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방법인데 이는 기금확보가 불안정하고 구속력이 없어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은 모두가 생산자의 발의에 의해서 되어져야하며 공동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를 공동으로 정부에 입법발의를 요청하여 정부가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하여주고 운영도 생산자가 하여야 됩니다.

개발기금의 확보방법

기자 : 일을 하려면 역시 기금이 문제인데 이 기금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박—개발기금확보 방안을 예를들어 설명하

면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사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개발기금은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적은액을 부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 개발기금으로 혜택을 보는 모든 수혜자가 공동으로 참여 하여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천수이상 생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금확보 방법인데 제품에 부과하는 방법 (Check off on commodity) 으로 미국에서 제란에 일정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원료에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두가지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도입원료에 부과하는 방법과 배합사료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결국은 생산자에 전가가 되지만 우선은 사료공장이 부담하는 느낌을 주며 도입원료가 양계의외의 사료에도 사용 됨으로서 부담자 성격이 분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보다는 배합사료에 부과함으로써 생산자가 부담하고, 양계사료에만 부과하여 부담자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급방법은 배합사료에 부과하는 경우는 사료공장이, 도입원료에 부과하는 경우는 도입기관에서 수급하면 됩니다.

기금의 사용목적 분명해야

기금을 확보함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분명하여야하며 품목별로 기금사용이 구분되고 이기금을 운용관리할 전담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America Egg Board) 또 경과 조치로 현재의 축협의 사료안정기금과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합사료에 아주 극히 적은 소액을 부과해도 큰 기금을 모을수 있습니다. 양계사료 외형액을 4천억으로 보고 0.1% 부과하면 4억이 되고

0.5%면 20억의 기금이 매년 적립됩니다.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이 돈을 쓰는 사람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전문가를 전담기구에서 양성하여 계속적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축협은 축종별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양계협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미국의 에그보드의 역할을 협회의 주업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협과의 업무조정은 정부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

한기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일을 다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부분적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 협동조합은 영세한 양축가를 보호해야 하며 조합원의 가족사육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축협이 업종별로 분리되어 연합회로 되면 축협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전담기구는 소비홍보, 새로운 제품개발, 생산기술개발등으로 과거의「생산에서 소비로」보다는「소비에서 생산으로」업무의 비중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계열화의 추진 —

관련부문 모두의

협력관계 이루어져야

기자—양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계열화가 되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박—현재 양축가와 사료공장의 관계가 고객관계에서 서서히 계열화 체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열화란 「개별경영간의 경제적 협력관계」 즉 관련부문 전체의 협력관계로 모두가 한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계열화의 장점은 첫째 개별 경영의 (사료,

양계 부화) 전문화에 의한 경영효율 (생산효율)의 증가와 둘째로는 경영통합에 의한 유통가격 조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산업을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자금면에서 유리한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료회사와 양계장이 계열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계열화는 올바르게 이해되어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계열화를 유도하여 경영효율을 증진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생산의 50% 정도가 계열화 되면 계열주체가 가격을 조절하고 산업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되어 자금과 경영의 예속화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정부의 생산자 단체 육성

기자-끝으로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박-현재 정부의 모든 정책이 민간 주도의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생산자는 自助조직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도시 자본에 먹히고 맙니다.

이런면에서 정부는 생산자 단체 육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기자-그러면 생산자 단체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박-첫째 산업의 장기발전 조정을 위한 생산자 단체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 합니다. 이는 기왕에 전담기구에서 설명된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원이 절대 필요 할것입니다.

둘째, 산업발전의 저해 기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계장, 액란저장, 난분공장등 개발자금을 정부가 지원하여 주는 일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는 정부가 만들어주고 이 도로를 민간단체에서 운영 관리하여 이용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셋째 전체적인 종합조정을 정부, 협동조합, 협회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양계인에 의한 발의

또 업계는 업계가 해야할일과 할수있는 일을 업계가 해나가야 합니다.

정책은 일시적이거나 업계는 영구한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양계인은 업계의 주인이며 그 주인 구실을 해야 되겠습니다.업계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기자-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양계인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때인것을 모두 명심하여 또한번 말로 그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주인이면서도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을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남이 해주려니 또는 시간이 해결 하여 주려니하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이시간 부터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할때 업계는 점차 밝아지리라고 확신 합니다. 감사합니다.